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34차 정기
일시	18. 11. 05 18 : 3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0/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	○	○	○	○	○	

□ 보고 안건

1. 사퇴공고 업로드 완료

: 페이지, 사이트 업로드.

2. 추천서 배포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주 시간표

: 선거관리위원회 채팅방 표 참조

3. 투표독려영상촬영 일자

: 선거 제반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므로 선관위 내에서 진행 필요. 선례 역시 선관위 내에서 모든 업무 진행.

-자연과학대학: 기술적 한계에 대해 외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지? 언론사 등 협조 요청 검토 요망. (총학생회: 세척상의 허용 여부 등 검토할 것.)

4. 캠퍼스타운 설명회

: 11월 7일 수요일 16시~ / 약학대학 3층 대강당. / 학생간부 행사참가 확인서 발급 가능.

5. 장애학생인권위원회 TFT 2차 회의 완료 - 기획안 작성 진행

: 3차 회의, 개정필요사항 검토 이후 기획안 완료 예정.

□ 논의 안건

1. 61대 총학생회 선거 - 선거인명부 확정(유권자 해석)

-자연과학대학: 부재자 투표 진행 후 합산 가능여부?(총학생회: 시스템 상 제약으로 불가. 또한 해보지 않은 것이라 소요 기한 예상 어려움//자연과학대학: 투표일 전 미리 받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실제 시행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 이해.//경영경제대학: 부재자가 간호대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투표 진행할 경우 모든 단위로 확장해야 함.//자연과학대학: 공식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 배려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문제없을 것이나 실제 적용이 어려울 것.//예술대학: 혜화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투표권에 제약이 있는 편. 부재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전 단위로 확대해야 함.//자연과학대학: 실습자 예외사항 발생에 대한 논의로만 판단하면 가능.//총학생회: 부재자투표 당장 시행 어려움. 인수인계를 통해 앞으로의 선거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실습자 유권자해석: 8차 이상 유권자와 동일 처리 (11단위 참여 중 8단위 동의로 가결)**

-자연과학대학: 실제 시행에 대해서 3학년만 문제가 되는 것. 부재자 투표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

-총학생회: 실습기간과 투표기간이 작년에는 실습 기간 문제가 크지 않았으나 올해 심각. 예외사항에 대

한 중선관위 의결로 진행할 필요.

-인문대학: 투표 불가자, 실습생만 있는 것이 아님. 투표 불가자를 8차 학기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세칙에 애매한 부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은 세칙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 (총학생회: 회칙 해석의 차이에 의한 것. 예외사항에 대한 중선관위 판단이므로 선례를 참조하여 진행 가능하다고 보아 33차 논의 진행.)

***유학생 유권자해석: 8차 이상 유권자와 동일 처리(11단위 참여 중 8단위 동의로 가결)**

-자연과학대학: 일반 재학생과 학번이 같은지?(총학생회: 동일) 자연과학대학 내 유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에 상당히 많이 참여. 유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선거가 가지는 정당성에 의문.

-인문대학: 유학생 처리 방법이 동일한가에 대한 문의? (총학생회: 정확한 답변 듣지 못함.) 행정적인 확인을 거쳤을 때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다면 동일 투표권 있음. 선본이 유학생 관련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함.(총학생회: 공약 등의 번역을 할 수도 있으나 모든 선거 제반사항은 중선관위가 관장. 선본의 의무만이 아닌 선관위의 의무.) 중선관위가 선거 공고를 번역해서 제공 가능. 번역된 상태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 안된다고 해서 배제할 수 없음. 장애인 투표를 예시로 들었을 때,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장애인을 선거인에서 배제하자는 것과 동일한 논리구조. (총학생회: 지금 당장 유학생 투표에 대한 제반사항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의.) 보이콧 또한 선거인의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 유학생을 투표 분모에서 제외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공과대학: 총학생회 선거 이하 모든 단위 선거에서도 유학생을 고려하여 진행할 경우 이하 모든 단위의 선거가 유학생에 대한 선거 제반사항을 바로 준비해야 함. 현실적으로 불가능.//인문대학: 선본의 전략에 맞길 수 있는 부분. 사실상 사회과학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고, 인문대학 역시 룸미팅에서 합의하면 될 것. 현실 문제를 기피하고자하는 결정, 당위성 없음.//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유권자 수를 상회하는 유학생 수. 상당한 수의 유권자가 무시되는 것 정당하지 않음.//인문대학: 유학생 제외 선례 시작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정사실화 하는 것 타당하지 않음.) 선거인 수를 조작하여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아님. (총학생회: 제반사항 부재로 인한 선거 차질을 예외사항으로 판단하느냐의 논의.)

-총학생회: 33차 회의,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즉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예외상황으로 판단하여 논의, 선례 참조 의견 제시.(인문대학: 작년 제외, 유학생 배제에 대한 언급 없었기 때문에 작년 배제 건을 선례로 삼기 어려움.//총학생회: 선거인명부 확정은 중선관위 논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 이 사항에 대한 공지, 회의록 외 관련 공고 따로 올라가지 않음. 올라간 공고 없으므로 언급이 없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선거인명부 구성 확신 어려움.) 원칙을 고려해야하나 실투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多. 선거 진행을 원활하게 할 의무와 세칙 상 유권자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현재 논의 주 골자. 12일 룸미팅 진행을 위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추가 의견 발의 이후 의결 필요.

-예술대학: 예술대학 내 유학생도 참여 활발한 편. 영어나 중국어 정도로만 번역해서 제공해도 선거 진행 무리가 없을 것. 유학생 배제의 부당성 인정하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이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음. 현재 당장 적용은 어려우므로 의결을 통한 결정 필요.(총학생회: 발생한 사안이 예외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차가 부당 또는 타당에 대한 생각을 나눔.)

-경영경제대학: 학생자치에 함께 참여하는 사례도 있으나, 경영경제대학 내에는 팀프로젝트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의 유학생이 많은 상황. 당장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 제공 어려움. 또한 총학생회 선거인 명부와 단과대학 선거인 명부가 같으므로, 8차 이상 유권자와 동일처리 되지 않는다면 경영경제대학 현황 상 선거 진행 불가.

-약학대학: 유학생을 유권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논조, 실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권이 분명히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유학생에 대한 선례에 대해 그 정당성을 검증하고 현 적용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8차 학기 재학생에 대한 투표권부터 모두 논의해야 함. 특수·예외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인문대학: 8차 학기의 경우 학생 회원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실습생은 투표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고려하는 것. 유학생은 실참여가 가능하고 재학생 신분이므로 제외되어서는 안 됨.//총학생회: 공간의 제약으로 발생하는 선거 차질을 예외상황으로 판단하여 실습생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고, 선거 제반사항의 부재로 발생하는 선거 차질을 예외상황으로 판단하여 논의 진행 중.)

-공과대학: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선관위의 역할이나 실제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 역시 선관위의 역할.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에 갑작스럽게 유학생을 포함하여 선거가 진행된다면 기존에 준비 중이던 여러 자치단위 선거에 어려움을 줄 것. 목적은 이해하나 현실적인 부분 고려 필요.

2. 61대 총학생회 선거 - 선거운동본부실 (11단위 참여 중 11단위 동의로 **가결**)

: 선거 제반사항 마련 취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공간제공 여부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문 발송하여 장소 제공 협조 요청할 것.

3. 장애학생인권위원회 TFT 이름 변경 - 장애인권위원회 TFT

: 정확한 변경 명, 의도 확인 이후 35차 회의 재논의.

4. 선거인 명부 확정 과정 공고 - 인문대학 발의 (11단위 참여 중 2단위 동의로 **부결**)

: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게 되어있는 기존 세칙 참조,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확정 과정을 공고할 필요. 선거인 명부를 임의 변경한 사례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중운위 회의록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 회의록을 계속 챙겨보는 학생 많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게 공고할 필요.

-총학생회: 페이지, 사이트에 링크와 파일 지속 업로드. 회의록 접근성 낮지 않으므로 추가공고 필요성 느끼지 못함.

-예술대학: 과정 공고 긍정적. 학생 의식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음.

-자연대학: 알 권리 보장에 대해 인정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공고에 긍정적이지 않음.

5. 2018-2 불법카메라 전수조사

: 2학기 전수조사 진행 요망. 일정 공지방 투표 통해 확정 예정.

-경영경제대학: 사용법이 어려워 조사 시 사용법 재안내 필요. (총학생회: 사용법 문서로 공유할 것.)

□ 기타 안건

1. 선거 공보물 플로터 이용 - 인문대학 발의

: 자치단위의 선거 홍보물 인쇄 전반을 총학생회 플로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예술대학: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인지, 선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인문대학: 선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

-총학생회: 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고장, 일반 학생 이용자 피해 우려. 또한 선거 홍보·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관위가 이 건을 고지한다면 사용자 폭주 예상. 불규칙적인 수요, 상시적인 요청에 대해

즉시 처리하기도 어려움. 사안이 선례가 되어 이후 총학생회의 사업 다양성 추구에 제약이 될 수도 있음.
-간호대학/약학대학/경영경제대학: 플로터, 총학생회 사업이므로 중선관위가 결정할 사안 아님.
-경영경제대학: 선관위 공고 제외, 선본 홍보물 전반의 인쇄를 전체적으로 막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 같은 기간 내 사용자 폭주로 문제 생길 것 우려.

2. 100주년 기념식 출석 관련 - 경영경제대학 발의

: 출석처리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 교강사 문의했으나 받은 내역 없다는 답변. 레인보우 시스템에서 뽑아서 증빙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총학생회: 학사팀에서 명단 처리중이라는 안내 받음. 해당 내용 재문의할 것.